

길림성 양로봉사 민생실사에 편입시켜

재택양로, 로인식당 등으로 행복한 만년 보장

양로봉사는 민생공정으로 천가만호와 관계된다. 로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가사'이자 더우기는 '국사'이다.

길림성은 매년 양로봉사사업을 성당위와 성정부의 민생실사에 편입시키고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 성의 60세 이상 인구는 626.83만명으로 전 성 인구의 26.79%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수준보다 5.69%포인트 높다.

2022년 이래, 길림성은 연속 3년 종합 내장식 사회구역 재택양로봉사 중심 건설을 성당위와 성정부의 민생실사에 포함시켰다. 2022년, 5,000만원의 자금을 배치하여 56개의 종합 내장식 사회구역 재택양로봉사 중심 건설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8,127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102개의 종합 내장식 사회구역 재택양로봉사 중심 건설을 지원하고 <길림성 종합 내장식 사회구역 재택양로봉사시설 건설 표준>을 출범했다. 2023년 말까지 전 성적으로 종합 내장식 사회구역 재택양로봉사 중심 156개가 건설되었다. 올해에는 또 각지에서 신청한 토대에서 47개를 선정하여 보조자금 3,619만원을 발급했다. 2025년 말까지 종합 내장식 사회구역 재택양로봉사기구는 전 성적으로 60%의 가두와 향진에 보급되어 점차 '15분 양로봉사권'을 구축하게 된다.



로인식사봉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구 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는 중요한 내용이자 중요한 민생공정이다. 길림성은 연속 2년간 로인식사 지원봉사를 민생실사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올해는 이 사업을 전 성의 '술선돌파행동'에 포함시켰다. 2022년 이래 길림성은 성급 자금 1억 2,000만원을 로인식사 지원봉사에 배정했다.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로인식사 지원봉사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2023년 12월 말까지 길림성은 루계로 549개의 사회구역 로인식당을 건설했으며 연인수로 564만명의 로인들에 봉사를 제공했다. 올해

의 목표임무는 1,300개의 로인식당과 로인음식점을 재건 및 신축하는 것인데 6월 말까지 이미 건설을 가동한 로인식당, 로인음식점은 1,201개로 임무의 93%를 차지한다. 그중 240개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는 임무의 19%를 차지한다. 2021년 이래 길림성은 특수곤난 로인가정에 대한 가정시설 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고 편리하며 장애가 없는 재택양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변기 손잡이, 미끄럼 방지, 충돌 방지, 자동감지 조명기구... 개조 목록에

서 볼 수 있듯이 개조 내용이 세밀하고 전면적이며 로인들의 가능한 수요를 거의 포괄시키고 안전계수를 높였으며 잠재적 위험을 줄였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을 모두 생각했다. 세심하고 진절해서 우리 생활에 큰 편리를 제공했다." 장춘시 룽원구의 한 주민은 가정시설 개조가 끝난 후 진심으로 감탄했다.

료해에 따르면 특수곤난 로인가정 시설 개조 대상을 전개한 이래 길림성은 총 4,200만원의 성급 자금을 배치하고 5,183만원의 국가 시범자금을 징취했다. '화장실 목욕 안전, 실내 이동 편리화, 재택 환경 개선, 지능 감측, 재활보조기구 설치' 등 기능 요구에 따라 로인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관련 시설들을 개조했다. 2023년 말까지 전 성적으로 이미 2만 5,693가구에 대한 시설 개조를 완수하였는데 이는 '14.5 계획' 기간 개조 임무의 63%에 달한다. 올해는 8,000가구를 더 개조하며 2025년에도 이를 계속 추진한다. '14.5 계획' 말까지 특수곤난 로인가정시설 개조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하고 로인가정에 원클릭 호출 시설을 설치하며 가족, 사회구역, 봉사조직, 사업일군으로 구성된 '4측 동시' 응급대응 절차를 구축하여 로인들의 생명재산안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 길림일보
/ 사진 길림성민정청

연길시에 또 4개의 민선식당 추가



한성로식 민선식당 현판식

8월 13일, 한성로식 민선식당이 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연길시 사회화 협력 민선식당의 새로운 모식의 전면적인 보급을 상징한다.

한성로식 민선식당은 사회구역 로인식당을 토대로 사회화 협력의 새로운 모식을 모색한 결과로 연길시한성로식유한회사에서 운영, 로인들에게 식사 장소와 료식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로인들이 집 근처에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에서 제1진으로 운영되는 4개의 사회화 협력 민선식당들은 각각 신흥가두 민화사회구역 연길시지향복무청 사령면부, 진학가두 문경사회구역

연길시한성로식유한회사, 하남가두 백국사회구역 리춘근목장소탕, 건광가두 연동사회구역 김소석부페(개발구점) 인바 60세 이상 로인들은 여기서 우대 식사정책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연길시의 민선식당은 주로 공간민영과 사회화 협력 등 두가지 건설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중에서 공간민영 식당은 '미소한 리익과 공익봉사'의 원칙에 따라 사회구역에서 무료로 제 3자에 장소 제공하고 제 3자가 시장화 운영으로 로인들에게 우대봉사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18개의 공간민영 식당이 건설되었다.

/ 정현관기자

80대 로인들의 고졸 60 톨 동창모임

8월 8일, 10명의 80대 고령 백발로인들이 고졸 졸업 60 톨을 맞아 뜻깊은 동창회를 가졌다.

60년전인 1964년, 월 연길형 5중(현재 연길시조양천제 1 중학교 고충부) 3학년 3반의 43명 학생들은 부푼 가슴에 희망을 한가득 안고 교정을 나섰다.

이 학교는 1935년에 조양천협화 농림학교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이어 조양천근민중학교, 룡정현 조양천제 1 중학교 등 13번이나 명칭을 고친 후 오늘날의 연길시조양천제 1 중학교로 되었다. 이 학교에는 그들의 자랑거리도 많고 추억도 많다.

동창들의 회억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양성한 근 2만여명 학우들 속에서는 장군에 혁명렬사 등 무수한 모범인물들이 나왔다.

1957년 8월 28일, 1학년 3반 김봉숙학생(14살)이 등교길에서 물에 빠진 소학생을 구하다가 순직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이 어린 영웅을 기리는 마음으로 '김봉숙중대' 기발을 이어왔는가 하면 중국공정원 원사이며 북경대학 부교장으로 발탁된 박세룡도 이 학교의 졸업생이다.

덕지체미로가 겸비된 인재 양성에 모를 박은 이 학교는 날뛰기, 그네뛰기 등 민족전통운동에서도 전국적인 우수한 성적을 수두룩이 따내 학

교의 영예실은 상장과 상패로 가득하다.

졸업 60 톨을 맞은 백발로인들은 그동안 모교가 따낸 영예에 무한한 금지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 제날 혈맹한 교사에서 어렵게 공부하던 일이며 그 시절 스승님들의 피나는 노력을 되새기고 배움과 사랑, 희망으로 들끓던 학창시절을 회억하였으며 오늘날의 현대화 교육환경과 교육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지난날에 대한 회억과 함께 백발로인들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연길시 공룡박물관에서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기념사진도 남기고 소영진의 새 농촌마을에 모여 연변의 천지개벽의 발전 변화를 목격했노래하면서 밤 가는 줄 몰랐다.

연변의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분야에서 명성을 떨쳤던 고명숙은 멀리 상해에서 달려와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짬짬이 건강상식을 보급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룡정고충당지부 서기로 활약했던 조승정은 연변의 교육 역사를 알삼들여 소개하였다.

동창회는 한차례의 좋은 정보 공유 모임으로 되기도 했다. 백발로인들은 세시대의 본보기 로인으로 사회에 대한 기여를 비기며 건강히 살자고 약속하면서 65 톨 동창모임도 기약하였다.

/ 박철원특약기자

대련시 조선족 명의들

기업인과 로인들 위한 무료진찰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의학분회의 무료진찰활동이 8월 10일 대련시 호지영과학기술센터에서 있었다.

대련시의 광범한 조선족 로인과 기업인들에게 무료진찰과 의학 관련 상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취지로 한 이번 활동에는 30여명의 유명한 조선족 의사들이 참가해 60여명 환자들을 봐주었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 대련시에는 약 7만여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인들은 사업에 바빠 돌아치다 보니 몸이 아파도 그냥 넘여가는 경우가 많고 설명 병원을 가도 용한 의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로인들은 언어

소통이 잘 안되어 병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현실에 대비해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의학분회는 올해 '의사절'을 계기로 대련시 제 2 병원과 제 3 병원, 대련대학부속병원, 대련시성경병원 등 의료단위에서 주임의사로 활약하고 있는 고평호, 리춘숙, 박정애, 백천명, 리련숙 등 30여명을 조직해 강강팀을 꾸려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 훈련, 고혈압, 중풍, 간염 등 치료와 예방을 둘러싸고 무료진찰 및 자문활동을 진행했다. 현장을 찾은 조선족 기업인과 로인들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차근차근 병치료 대책을 알려주는 의사들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 리삼민특약기자

양로간호원 직업 증설 ... 전문인력 부족



상해시 보타구 로인간호 통일수요 평가원 리영방(왼쪽)이 사회구역 의사와 함께 간호 수요 평가를 하고 있다.

/ 신화사

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일부 새로운 직업과 직종을 발표한 가운데 양로간호원이라는 새로운 직업과 함께 그 산하에 사회구역 로인보조원(社区助老员), 로인목욕보조원(老年助浴员) 2개 직종이 증설됐다.

2023년말,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로인은 2억 9,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했다. 그중 65세 이상 로인은 2억 1,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했는데 우리 나라는 이미 중도 로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상해, 호남, 사천 등 지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양로봉사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깊이 추진됨에 따라 양로 분야에 더 많은 취업 성장점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재 양성 강도를 높이고 직업기능 표준을 규범화하며 여러 조치를 취해 양로업 종사자의 종합자질을 제고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전성 패산시 홍아현 구여성양로봉사유한회사의 간호원 장파는 최근 홍아현 홍천진에 거주하는 류씨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할아버지의 목욕을 도왔다.

76세의 류씨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팔다리 일부가 반신마비되고 동시에 기초적인 노년병을 앓고 있었다. 장파는 "로인의 신체 정황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에 목욕을 시켜드린다. 목욕을 시켜드리는 과정에서도 항상 로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목욕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류씨 할아버지가 말했다.

홍아현 구여성양로봉사유한회사 간호주임 왕동매는 방문봉사 간호원은 적어도 3~6개월의 훈련을 거쳐 전문간호원증서를 취득해야

한다며 목욕을 돕는 과정에서 몸을 뒤집어주기 등을 모두 규범적으로 하고 있어 2차 상해를 피면하고 있다. 장파는 "로인의 신체 정황을 재택봉사부를 설립하였는데 현재 매일 60~70건에 달하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는 영양식 배송, 기능유지 훈련, 목욕보조 등 업무를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다층적, 다양적 양로 수요는 양로업 종사자의 전문자질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로인능력평가사, 양로고문 등을 포함한 분야가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더욱 강한 일련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상해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양로고문제도를 추진한 도시중의 하나이다. 2023년 현재 총 6,988개의 양로고문소가 있으며 양로고문은 1만 300명에 달한다.

상해시 장녕구 선하신촌가두 양로